

다니엘의 책 - 번호 66

예언적 교향곡의 베일을 벗기다: 인침의 때, 늦은비,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

Jeff Pippenger
2024-01-30

우리가 이전 글에서 살펴본 본문은 이렇게 말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성령의 큰 부으심"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경험으로 아는, 깨우침을 받은 백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속은 이렇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큰 부으심"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더 작은 부으심(한정됨)을 시사한다.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강한 천사가 강림했지만, '교회의 대다수'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아니다. 2001년 9월 11일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완전하고 전심의 헌신'에 이른 한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시는 시점 사이에, 늦은 비가 '측량'되고, 살아 있는 자들의 심판이 일어나며,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두 음성을 제시하는데, 화이트 자매는 그것들이 교회들을 향한 두 가지 부르심이라고 알려 준다. 두 번째 음성(부르심)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이다. 첫 번째 음성은 2001년 9월 11일에 임했다. 그때 시작된 성령의 부으심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큰 지진의 때에 그들을 기치로 높이 드시며 마침내 성령을 그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리는 그 기별을 선포할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번째 음성이 울려 퍼지기 전에 정결케 되어야 했다.

1844년 봄의 첫 실망 때에, 개신교도들은 배도한 개신교도들이 되었고, 그때 지체하는 때에 있게 된 신실한 자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로 이루어진 성전을 대표했다.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강력한 천사가 강림했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세우는 첫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그 시작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2020년 7월 18일에 시험 과정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세례 때에 고대 이스라엘을 분리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첫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그분이 그 역사 속에서 세우고 계시던 기독교 성전의 기초였다.

그분의 삼년 반 사역 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것을 '그의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셨고, 사역의 끝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는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폐한 채로 남겨졌다'고 선언하셨다. 이전의 언약 백성은 외면당했고, 그분의 새 언약 백성은 '그의 성전'으로 세워졌다. 주일법이 시행될 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단의 조직 체계는 황폐해질 것이다.

“선지자는 말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더라.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힘센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Revelation 18:1, 2). 이것은 둘째 천사가 전한 바로 그 기별이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이는 ‘그가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으로 마시게 하였음이라’ (Revelation 14:8).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곧 그녀의 거짓 교리들이다. 그녀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에덴에서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영혼의 본래적 불멸성—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그녀는 이와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퍼뜨렸으니, 곧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느니라’ (Matthew 15:9).”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신성모독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행위들 가운데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서도 교회들에게 두 가지 뚜렷한 호소가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러하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는 그가 자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요한계시록 14:8).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말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들이 하늘에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요한계시록 18:4, 5).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2월 6일.

첫 번째 성전 정결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 음성과 일치하며, 둘째 음성은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큰 외침이다. 1절부터 3절은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성취되었다. 그것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고, 첫 번째 성전 정결, 곧 교회들을 향한 두 차례의 부름 중 첫째가 선포되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이 시작된 그리스도의 침례 때 시작되었다. 1840년 8월 11일, 첫 번째 성전 정결, 곧 교회들을 향한 두 차례의 부름 중 첫째가 밀러라이트 운동에게 선포되었다.

그때에 늦은 비와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이 조사심판의 최후의 장면들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 최후의 장면들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실한 자들의 죄를 죄의 책에서도 말하시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시기는 늦은 비가 뿌려지는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결할 때에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때 성령의 부어 주심은 한량없을 것이다.

“형제 여러분, 위대한 준비 사업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은 세상의 틀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이들은 하늘의 틀을 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칙령이 나가고 인침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품성은 영원토록 순결하고 흠 없이 남을 것입니다.” 증언, 5권, 216쪽.

“성령의 역사는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오직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높고 거룩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을 발로 짓밟는 자들 사이의 경계선을

숭고하고 고상한 의미에서 드러내 보임으로써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성화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거짓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다. 시험의 때가 오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은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생각한 죄의 사람의 표지를 지니는 것이다." Bible Training School, December 1, 1903.

이사야는 그가 '거친 바람'이라고도 부르며 그것이 억제된다(그친다)고 하는 '동풍의 날'을 '측량'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목한다.

그것이 뻗어 나올 때에는 분량을 헤아려 네가 그것과 다투리라. 그는 동풍의 날에 그의 거친 바람을 멈추신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죄악이 속죄될 것이요, 그의 죄를 제거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석회돌 조각처럼 만들 때에 수풀들과 우상들이 다시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견고한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거처는 버림을 받아 광야 같이 남겨지리니, 거기서 송아지가 풀을 뜯고 거기 누워 그 가지들을 갹아먹으리라. 그 가지들이 시들면 꺾여질 것이요, 여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불에 땀 것이니, 이는 그 백성이 깨달음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만드신 이가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지 아니하시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강의 수로에서부터 애굽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타작하시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한 사람씩 모아지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이 불려,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게 되었던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 27:6-13.

"동풍"은 "다르시스의 배들"을 가라앉히고 두로의 창녀에게 심판을 내리는 힘이다. "동풍"은 왕들을 두렵게 만드는 힘이다. "동풍"은 이집트에 7년의 기근을 초래한 "blasting"의 병해를 가져왔고, 그때 요셉과 파라오가 온 세상(이집트)을 속박에 넣었으며,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때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운 "메뚜기 떼"를 데려온 것도 바로 그 "동풍"이었다. 이슬람은 "동풍"이다.

성경 예언의 개혁 운동들은 각 개혁 운동이 고유한 주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14만 4천의 개혁 운동의 주제는 이슬람이다. 2001년 9월 11일, 세 번째 화의 이슬람이 땅의 짐승을 공격했고, 조지 W. 부시 '둘째'는 즉시 '동풍'에 억제를 가했다. 그 사건 가운데, 화이트 자매의 기록대로 뉴욕시의 큰 건물들이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이 성취되었다. 그 세 구절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음성 중 첫째를 나타낸다. 둘째 음성은 4절에 있으며, 그것은 미국에서 주일법이 시작될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나타낸다. 세 번째 화의 이슬람은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동안 요한계시록 7장의 네 천사에 의해 억제된다.

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대에 그분의 백성의 죄와 범법을 오래 참으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교훈대로 행했더라면, 하나님의 사업은 전진했을 것이며, 진리의 기별은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켰더라면, 하늘을 날아다니며 땅에 바람을 놓으려 하던 네 천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바람을 불들라, 불들라. 그 바람이 땅 위에

불지 못하게 하라'고 외치는 기별을 가진 그 천사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선포되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 주의 사업은 방해로 인치는 때가 지연되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듣고 회심할 기회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원고 발표집, 제15권, 292쪽.

인침받는 자들은 일요일법 이전에 인침을 받는다. 이는 세상이 일요일법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남녀들을 봄으로써만 경고를 받고, 그리하여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부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만 4천의 인침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으나 인침의 시기는 지연되었다.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세대를 향해 말하고 있으며, 이 본문은 마지막 세대를 직접 가리킨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권고 안에서 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인침의 때가 방해받고 지연되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선지자를 죽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지연되고 방해되었다. 프랑스 혁명기의 그 짐승은 무신론이었으며, 그것은 지금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각성주의"를 도입한 자들이 Future for America 운동 안으로 들어온 무신론적 운동을 예표하였다. 그 후 Future for America는 하나님의 권고 안에서 행하기를 그만두었고, 현대 동성애 의제를 추진하는 자들과 시한 설정을 촉진하는 다른 이들의 영향력이 인침의 때를 방해하도록 허용하였다.

내게 계시된 많은 것들이 마음에 밀려와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거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동료 인간을 다스리려 스스로를 내세우고, 성령께서 정죄하신 계획들을 실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인가를 받지 못한 이 새로운 질서는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타고난 마음은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더럽혀지고 부패시키는 원칙들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의 원칙들을 숨겨서는 안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그것은 큰 외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주님은 이 사업을 매듭지실 때를 정해 두셨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가? 이 마지막 날들에 선포되어야 할 진리가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나아갈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만일 사탄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준비의 기간은 길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축복의 기별을 가지고 보낸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 벌어진 움직임의 비밀이 있다. 이 사람들은 미움을 받았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친히 미움과 멸시를 받으신 것처럼, 그대로 미움과 멸시를 받았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드러낸 바로 그 속성들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이성과 재능을 인간의 관할 아래 종속시키려 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갖지 못했거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애초에 세상 빛을 보아서 안 될 원칙들이 태어났다. 그 사생아는 생명의 첫 숨을 내쉬자마자 질식시켜 버렸어야 했다. 유한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진리와

주께서 택하신 사자들에게 맞서 싸우며, 감히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수단으로 그들을 방해해 왔다. 하나님의 기별을 가볍게 여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빛과 진리를 제시하도록 사용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멸시한 자들의 지혜와 계획에 무슨 가치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1888년 자료, 1525.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인치는 시기는 사탄의 대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방해 받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밀러주의 성전이 세워졌고, 1844년 10월 22일에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 성전과 군대는 1,260년 동안 교황권에 의해 짓밟혔으며,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밀러주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성전의 상징은 숫자 46이다.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강림했고, 개신교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 역사는 문자 그대로 반복된다.

성경에서 "동풍"은 다시스의 배들을 가라앉히고, 그 큰 성 두로를 무너뜨리며, 왕들과 상인들로 하여금 "화, 화로다"("슬프다, 슬프다")라고 세 번 외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의 본문에서는, "동풍의 날"이 곧 하나님께서 "그의 거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날이다. 이 본문에서 "동풍"은 억제되어, 셋째 천사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역은 늦은 비 때에 이루어진다. 이 본문에서 제지된 "동풍"이라는 주제는 늦은 비, 셋째 천사의 사역,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불러내는 일을 가리키고 있다. 그 시기에,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동안,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불들고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1-3.

'동풍'이 멈춰지는 것, '성난 민족들'이 붙잡히는 것, 그리고 '네 바람'이 붙잡히는 일은 모두 늦은 비의 시기 동안 일어난다. 이는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에게 찍히는 때가 바로 늦은 비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네 명의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네 바람'은 이슬람을 상징한다.

"천사들은 네 바람을 불들고 있는데, 이는 격노한 말이 풀려나 온 지면 위로 질주하며 그 지나가는 길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오려 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자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둔하고 차갑고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인가? 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생기를 불어넣으사,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발로 서서 살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험착함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험착한 문을 통과할 때에, 그 넓이는 한이 없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0, 217.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음 글에서 더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때는 성경 예언의 "여덟째 왕국", 곧 "일곱 중에 속한" 왕국으로 대표되는 "이 왕들의 때"이기 때문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부서뜨리고 멸하여 버릴 것이나, 그것은 영원히 설 것이라. 왕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쳐서 부서뜨리는 것을 보셨은즉,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은 확실하고 그 해석은 참되니이다. 다니엘 2:44, 45.